

Propylene, 6월 730달러 돌파할까?

FOB Korea 720-725달러로 8달러 상승 ... 수급 가격차이 30달러 이상

Propylene 가격은 6월18일 FOB Korea 톤당 720-725달러로 8달러 상승했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Spot 공급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긴급구매 요구가 여러 건 발생함으로써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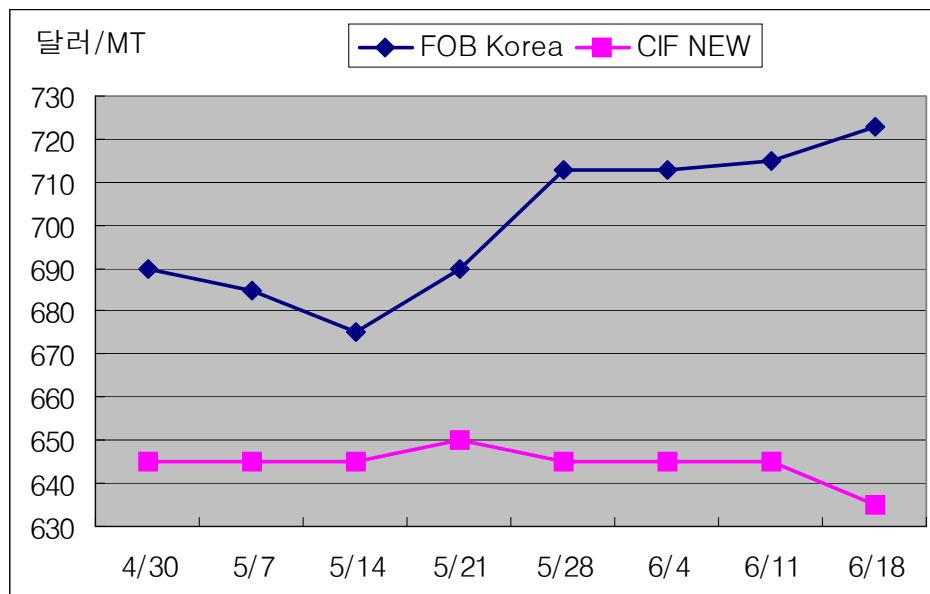
지난주 초에는 무역상들이 FOB Korea 톤당 720-730달러를 요구했으나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오름세를 보여 7-8월 거래물량이 CFR 745-750달러로 상승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운송코스트까지 상승세를 보여 공급기업들이 7월 공급가격을 CFR SE Asia 톤당 790달러로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요자들은 CFR Malaysia/Indonesia 톤당 740-750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절충이 모색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구매자들은 CFR 730달러를 제시하는 반면, 공급자들은 CFR 760달러를 요구해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Prop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프로필렌 가격은 Chemical 그레이드가 CIF NWE 톤당 600-620유로, Polymer 그레이드는 620-630유로로 각각 10유로 하락했다.

<화학저널 2004/06/22>